

제 7 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 성명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의 관광 담당 장관은 2015년 4월 12일 일본국 수도 도쿄에서 제7회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6회 회의가 2011년 5월에 개최된 이래, 세계의 관광 분야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7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2018년 2~3월)가, 2013년 9월에 도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2020년 7~9월)가 각각 결정되어, 세계의 관광 목적지로서 아시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전년도에 남한산성(한국), 대운하, 실크로드(중국), 도미오카 제사장과 비단산업 유산군(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한·중·일 3국의 등록 건수가 76건으로 착실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 자원으로서의 적절한 활용과 이를 통한 각국, 각 지역의 문화·역사의 상호이해 촉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일 관광 담당 장관은 본 회의에서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관광에서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3국간 관광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인적 왕래의 이용편의 향상에 의한 한·중·일 관광 교류 신시대의 개막

(1) 한·중·일 3국 간의 인적 교류 규모는 장관회의가 시작된 2006년에는

1,384만 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약 1.5배인 2,047만 명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2020년에는 3,000만 명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3국이 협력하여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3국은 항공 노선 내실화와 크루즈선 취항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각국 주요 도시의 시내로부터 공항·항만까지의 교통 원활화, 통신환경 정비, 신용카드 결제 환경 정비 등 여행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를 통해 인적 왕래 확대를 촉진한다.

(2)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하여, 「쌍방향 교류」, 「지역·지방 교류」, 「문화·스포츠·청소년 교류」의 3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3국 간 민관 제휴를 추진한다.

한·중·일 3국 관광 당국은 민간과 협력하여 당분간 아래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무자 수준에서의 협의를 진행한다.

-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와 연계한 교류 투어 실시
- 축제, 전통예능, 세계유산 등 문화·역사교류와 연계한 교류 투어 실시와 공동 프로모션
-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관광 교류와 공동 프로모션
- 한·중·일 교육 여행 심포지엄의 개최
- IT를 활용한 여행자 서비스의 고도화
- 관광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 관광 인재의 양성
- 3국의 시장동향과 관광통계 등 정보 공유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등

2. 3국 공동 프로모션에 의한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 추진

(1) 한·중·일 관광 교류 신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제휴하여 3국을 여행의 공통 목적지로 하는 동아시아 역외 지역을 대상으로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을 실시한다.

(2) 3국 관광 당국은 상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당분간 아래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에서의 협의를 진행한다.

- 3국 정부관광국은 구미 등 역외 지역에 소재한 현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프로모션의 타깃층이나 내용 등을 검토한다.
- 3국 공동 포스터 및 팸플릿 등을 작성하여 구미 지역 등의 여행박람회에서 상담회 참가, 일반소비자 대상 전시 활동 등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 3국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모델 코스 공동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한다.

(3) 3국 관광당국은 동아시아의 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과 역내 주유성 향상을 위해 각국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항공노선 활용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한·중·일 3국의 제휴 강화에 의한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관광교류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중·일 3국 관광당국 간 제휴를 강화한다. 각국의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나 쇼핑에

관한 문제, 안전의 확보, 관광교류 위기 시 상호협력 등 관광에 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를 3국이 제휴해서 추진한다.

4. 차기 회의

201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 제8회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본 성명은 2015년 4월 12일 일본국 도쿄 도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되며, 이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여유국 국장

일본국 국토교통성 대신